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6-06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6-06
2021.06.06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387282010>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6.06

1. [아나키스트는백신접종을반대해야하는가?]

우선분명히밝혀두고시작하고자한다. 아나키스트연대는다른어떤이유도아닌우리가함께살아가고있는모든이웃을위해, 그리고우리스스로를위해가능하다면최대한빨리백신접종에동참할것이다.

왜이런이야기를하느냐하면최근스스로를아나키스트라고이야기하며코로나 19 백신에대한음모론을퍼는이들이아나키스트연대의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서도있었기때문이다. 음모론이라는것이늘그렇듯사람들의불안을이용해영혼을쪼먹어들어가는것이지만, 자본가들이세계의인구를감소시키기위해일부러변종바이러스를퍼뜨리는악품을백신이라는이름으로포장해공급하고있다는류의이야기는, 해도너무했다.

그러면저런허황된이야기들은더상대할가치도없으니제쳐두고몇가지를따져보도록하자. 첫째, 아나키스트는국가혹은정부가주도하는백신접종에동참하거나찬성해야하는가? 이것은국가를존속시키는행위이기애나키즘과상충하는것이아닌가? 둘째, 백신접종에반한다면이것은사회를, 조금더직접적인말로사람들의목숨 (문자적표현그대로목숨) 을지켜낼수있는가?

두번째질문부터분명하게답하겠다. 현재백신을통한접종외에코로나 19 의전파를멈추거나, 혹은그속도를늦출수있는방법은없다. 코로나 19 에감염된이들에대한치료제는또다른문제이니다른기회에다룰수있겠지만, 코로나 19 의감염이전에이로부터예방수칙보다더높은확률로감염을막을수있는방법은예방접종뿐이다. 21 세기의과학이가리키는방법은이길이다.

그러면왜이러한과학적근거를눈앞에두고백신을접종하면안된다는니하는이야기가나오는가? 첫째로는백신접종에대한선택의자유를이야기하는이들이있고, 둘째로는과학적근거에대한근거없는비난및불신이큰갈래로나뉘것이다. 과학적근거에대한근거없는비난및불신, 혹은검증되지않은사례를이야기하는것은논하지않겠다. 논할가치가없는이야기는논하지않을용기도때로는우리에게필요하다. 그러면첫째이유, 백신접종에대한선택의자유 (물론둘째이유의방어를위해이것을사용하는사례도대다수다) 에대해서는어떻게이야기할수있을까?

분명한것은그선택은당연히존중되어야한다는것이다. 내몸에약물을투여하지않겠다는이들에게강제로그것을투여할방법은없다. 그것이자유다. 하지만자유는언제나책임이따르는것이고, 그선택에대한결과를책임질자세가되어있기를바랄뿐이다. 자신의선택으로백신접종을거부한이들은앞서이야기했던것과같이우리와함께살아가는이들에대해직접적인생명의위험을초래하는이들일것이다. 그렇다면국가나정부가아니더라도공동체는그런이들에게그에상응하는것들을요구할수있을것이다. 이에대한것만수용할수있다면, 그선택은자유다.

다시원론으로돌아와서, 그렇다면아나키스트는국가나정부에협조해백신접종을해야하느냐는질문에답해보자. 우리는이에대해백신접종은국가나정부를존속하는것이전에, 사회를지켜내는일로접근해야한다고답하겠다. 백신접종거

부를국가와정부에대항하는무기로사용해국가와정부가무너진다고해보자. 사람들이지금보다더많이죽어나간뒤의세상에도래할수있는것은그저혼란그자체인카오스이지, 다른질서로사회를재편하는아나키즘이아닐것이다. 우리는'다른' 세계를원하는것이지, '망해버린' 세계를원하는것이아니다.

고장난시계도하루에두번은맞는다. 아무리내가싫어하는사람이라도삶에서의모든행동이틀릴수는없다. 소뿔걸음질치는격이라도맞는말을한다. 자본과국가가백신개발및접종을서두르는것은물론지금의체제를지키고유지하기위해서다. 이미자본과국가는지금의상황을기존의체제수호가어려울수도있는심각한상황으로받아들이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는우리과우리주변의목숨을내던지자는주장이아니라, 백신의분배조차자본의논리에목줄이매여끌려다니는상황을지적하고, 우리목숨을가지고거래하는자본을폭로하고, 이에대한반대의의견들을모아내는일에열중해야할것이다. 다시한번말하지만우리는'동귀어진' 이아니라' 다른세상의이상상력' 을향해나아가야한다.

백신접종에동참하든하지않든자유다. 하지만그로인해누군가목숨을잃을확률이올라가고전파가계속될확률이올라간다면그에대한반대급부는전적으로책임지도록하자. 그리고제발이상한, 말도안되는음모론에혹하지말고이상황에서도이윤과차별을먼저생각하는자본과국가에대항할수있는방법들을모색하자. 그러기위해서, 일단살아남자. 우리가살아남는이유가국가를유지시키기위해서도아닌것을명확히인식하고, 우리가여러상품을구매하는것이자본을배불리기위한것이아니라는것을명확히인지하자. 바로그자리에서부터, 우리는대중과함께이야기를시작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 백신접종 100 일...이달'1 천 300 만명 +α·11 월집단면역' 청신호 (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127951530?](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127951530?input=1195m) input=1195m

2. [일찍깸다고저절로일찍출근할쏘냐]

5 월 15 일, 서울용산구의한도로에서한청소노동자가치킨듯이주저앉더니결국뒤로쓰러지고말았다. 가로청소위탁업체에소속된 60 세의박모씨는뇌경색으로병원에 옮겨져치료를받았지만열흘만에끝내세상을떠나버렸다. 심장질환도있던그이지만아직자녀둘이대학생이기에일을계속하려했던그는노년에청소업체에들어가서오후 4 시에일이 끝나면잠만잘정도로힘들어했다. 그는다른동료들과더불어본래근무시작시간은새벽 6 시임에도불구하고업무량달성을핑계로매일 1 시간더일찍출근해서 5 시부터청소를시작했다. 게다가청소해야할구간이무리하게할당되어서탄력적으로사용하라면휴게시간도눈치를보면서쓰기어려워했다.

이런정황으로보아박모씨의안타까운죽음은명백히무리한노동을강요해온
청소업체가저지른산업재해이며살인이다. 다행히청소업체는뒤늦게라도장례
절차와산재신청을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했지만업체측에서 1 시간더일찍
출근하는것에대해이따구로변명했다. “60 대가넘어가면잠이없고새벽에일어
나는게습관이되다보니까지저절로일찍깨서.”참으로어처구니없는말일수가없다.
60 대가넘어간다고모두잠이없어지는가는둘째치고상식적으로일찍깨다고저
절로일찍출근하는것이말이된다고생각하는가? 차라리그시간에체조를하거나,
TV 나라디오를듣거나하지않을까?

왜이리도청소노동자, 운송업자등필수노동자를경시하는가? 딱히‘배움’없
이할수있다고보니까? 우선과연해당직종에업무에대한‘배움’이아예없는지도
의문이지만일단그토록주장하니없다고치자. 그렇다고그일의강도가악한가?
아직해도뜨지않은새벽이나깊이해가져문심야에바닥을쓸고닦으며, 역겨운토
사물을치우며, 무거운쓰레기를치우는일은절대손쉽게할수있는일이아니다. 그
러면그일이중요하지않은가? 흔히억대의연봉을받지만실제로노동을한다고보
기어려운변리사와변호사들은물론이요실제로현명애많은이기를가져다주는
하이테크개발자들조차도인류의풍요로운삶에기여할뿐이지직접적인생존에필
수적이지는않다. 그러나필수노동자들은당장존재하지않는다면, 누군가가그일
을하지않는다면인류는순식간에물자부족과열악한환경에서발생하는질병에의
해멸망하고말것이다. 이세상에소중하지않은노동자는없다는것이다.

”60 대청소노동자의죽음...그들은왜 1 시간일찍출근했나” :

https://imnews.imbc.com/.../article/6231498_34936.html

3. [그러면망하시면됩니다]

중소제조업체들이괴로운모양이다. 원자재가격이오르고, 해운운임이상승
했는데, 주 52 시간규제에최저임금인상까지겹쳐서, 버틸수가없단다. 원자재
가격이나해운운임상승은통제할수없는리스크니까, 내버려두자. 애초에리스크
도고려안하고경영하는멍청한경영자라면망하는것이정당하니까말이다. 아마
도노동시간최대한도규제나, 최저임금인상에대한애기를하고싶었던모양이다.
기업들에게감히규제를하다니! 나아쁜좌익? 빨갱이? 친노동? 문재인정부! 같
은말말이다.

그러니까대한민국의중소제조업체라는곳들은, 노동자들이주 64 시간의노
동을 (1 주 52 시간에만력적근로시간제를확대적용해주고어찌고해서 52 시간
까지는연장수당없이일하고, 12 시간은연장근무할수있게해줬으니까), 시간당
8,720 원미만을받으며하지않으면망하는곳들이라는뜻이다.

그리고그러면망하시면된다. 망하기싫으면그잘나섰다는, 고수익의근거라
는“경영능력”같은것을발휘해서판로를뚫어보시던가. 그것을할능력이안되면,
그능력에걸맞게사장월급을가서노동자들최저임금을맞춰주던가. 그것도못할

정도의기업체라면, 사장님들이그토록사랑해오시던시장경제의원칙에따라문
을닫는것이옳다.

아니, 그런데, 솔직히주 64 시간노동이적은것도아니고, 최저임금도그렇게
높은건아니지않나? 라고생각했더니, “임채운서강대경영학과교수는“경기가
개선되고있다지만대기업과일부 1 차협력사만호황일뿐 2~3 차협력사는힘겨
운상태”라“고밝혔다고한다. 인간적으로, 대기업사내하청을중소기업이라고부
르는건좀그렇지않은가. 결국문제는대기업들이뺨을너무많이뜯어가서그런건
데말이다.

이런말도안되는기사를쓴곳이... 음, 한국경제...

(끄덕)

”” 이와중에주 52 시간, 더버틸힘없다”...중소제조업’ 비명” :

<http://naver.me/G5rhtZOw>

4. [죽여놓고추모를하란다]

현충일이다. 국가를위해희생한사람들을위해국민들과국가전체가묵념하고
그들의정신을기리는날이다. 물론현충일에서대부분묵념의대상이되는사람들
중절대다수는군인인것은넘어가고, 경제개발이라는명목아래죽어나간이름
없는노동자, 민중은없다는것은넘어가자. 국가가추모하고기억하려는척조차도
안하려는대상일뿐이니까.

월남전에참전해죽어나갔던사람들, 한국전쟁에참전해죽어나갔던사람들을
국가가기억하는척행사를진행한다. 그리고민족의자주독립국가를건국하고자
한사람들 (심지어자칭아나키스트들도) 을기리고자한단다. 그리고그들의정신
을따라앞으로나아가겠단다.

착각하지말아야한다. 그들이죽은이유는그들이민족과국가를위해희생하고
자마음먹고미친듯이돌격을, 자폭을, 총탄이빗발치는전투현장에나섰기때문
이아니다. 당신들이멋대로’ 의무’ 랍시고정해놓은법과헌법에따라징병됐고, 그속
에서죽음으로몰아죽음의당위성을강제로만들어낸것이아닌가?

착각하지말아야한다. 독립운동을통해만들고자했던나라가어떤나라인지는
몰라도, 미소양국에의해찢어발겨진한반도에서나타는양정부가그소위’ 민족’
에대한착취와억압을자행하고학살과통제, 지배를자행했음을우리는잊을수없
다.

국가권력이끌고거죽여놓고추모를하라는정신나간행태를우리는도저히받
아들일수없다. 그럴시간에우리는차라리정부청사에침이라도한번더뵈고자한
다. 그것이차라리죽어간사람들에대한더올바른추모일테니까.

” 오늘 66 회현충일추념식...전국 1 분묵념” :

<http://naver.me/5uxqcgFh>